

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(이하 민간의보)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엄연히 담당부처가 따로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설익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 무소불위의 자세로 각 부처의 업무에 개입하던 옛 재정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. '영리의료법인'이라는 지극히 혼란스럽고 미숙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도 '설익음'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.



하지만, 그 덕에 마침 민간의보를 주제로 한 '정책과 쟁점'의 논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민간의보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글을 실었습니다. 민간의보 도입 배경과 그간의 추진경과,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, 민간의보 도입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, 향후 논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. 동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방안에 있어서 두 명의 필자가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의 논의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'HIRA연구'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치료재료의 관리현황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다루었습니다. 치료재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.

'이슈브리핑'에서는 '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'와 최근 개정된 '의료급여법 시행령·시행규칙'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.

'해외동향'에서는 '대만의 치료재료 급여가격 결정 현황'과 '유럽의 통원수술 활성화 방안'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해외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실었습니다.

'진료경향분석'에서는 2007년 8월 1일의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나타난 진료경향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. 제도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진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성인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데 비해 소아의 본인부담금은 낮아져 소아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'HIRA정책동향'이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평가정보센터장

정 형 선